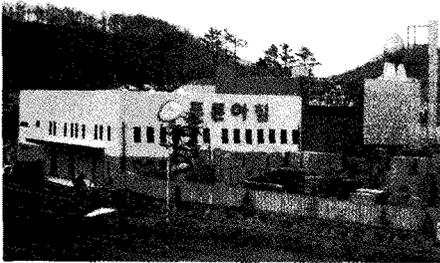


'푸른 아침'을 열어가는 계란물류센터 농업회사법인 (주)청계원

등급사업본부 사업관리팀 과장 송중호



선진화된 생산 및 유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청계원의 대표이사이자 양계인 2세인 한만웅 사장은 현재 국내 계란시장이 소비자의 축산물 위생환경의 욕구에 비해 업계의 기반이 아직 약하고 생산자의 시장에 대한 가격결정력이나 지배력이 갈수록 낮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형 GP센터(Grade&Packing Center)를 통한 생산자의 유통방법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갖게 됐다.

이에 생산농가들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념 하에 양계분야의 20~30년간 노후우가 축적된 4명의

양계농가가 뜻을 모아 지난 2005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7년 3월 경기도 이천에 사육규모 1백30만수, 일일 최대 계란 생산량 1백만개로 국내 GP센터 중 자체 사육규모 및 생산량에서 국내 최대 규모(총면적 4,246.31㎡)의 농업회사법인 (주)청계원을 출범시켰다.

(주)청계원은

수도권 물류센터와의 근접성으로 유통시간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이천에 GP센터를 설립한 (주)청계원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일반란과 식자재란, 2층은 등급란 및 제품란, 위생란 등 브랜드란을 처리하고 3층은 본사 사무실 및 회의실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GP설계 시부터 건물 전체를 HACCP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계란의 입·출고장과 사람의 출입구를 별도로 분리해 외부 위해요소 감염우려를 최소화 하였으며, 내·외벽의 2중 구조로 효율적인 단열유지,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는 물론 건물 밖에서도 원활한 작업을 위해 1,2층 모두 차량이 다닐 수 있어 유통시간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자체 품질관리실을 운영하여 계란의 안정성과 신선도를 검사함으로써 품질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장에서 전일이나 당일 오전에 집란된 계란은 GP센터에서 세척, 살균, 오일코팅, 포장 작업을 통해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향후 계획

(주)청계원의 GP센터는 축산물등급판정을 통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장과 (주)청계원 GP센터가 동시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획득함과 더불어 2008년 9월에는 경기도 G마크인증을 받았으며, 안정성과 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농장의 생산량을 보면 총 1백30만수로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1백만개이다. 기존 거래처 납품을 제외하고 현재 일일 8십여만개가 (주)청계원에서 생산되고 있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앞으로 1백만개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청계원의 납품 거래처는 국내 대기업의 주요 OEM, 계란 가공업체, 말고 신선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자체브랜드인 '푸른아침'으로 백화점 및 농협유통 등의 유통업체로 납품하고 있다. 특히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 국내에서 제일 까다롭다는 풀무원에 계란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청계원의 품질 관리 기준 또한 국내 최고수준으로 높아져 자체 경쟁력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품질관리 중점의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